

전북도, (주)씨스와 새만금공장 증설 투자협약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주)씨스...609억 원 추가 투자

전라북도 새만금청, 군산시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을 제조하는 (주)씨스와 609억 원의 투자와 160여 명을 신규 고용하는 투자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씨스는 새만금산단 기존 투자부지(1공구)에 609억 원을 추가 투자해 공장 1동(2층)을 증설하여 전기차 핵심부품인 친환경 고효율 모터 제이기, 자율주행 제어시스템 등 기술 고도화 전장부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주)씨스의 이번 추가 투자로 미래 전북의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새만금에 1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관계기관은 투자협약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주)씨스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확대에 적기 대응을 위해 대지면적 9,125㎡에 SMT·설비 및 웨이브 라인을 갖춘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월 준공 목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건 송도에 본사를 둔 (주)씨스는 차세대 전장제품 제조 기업으로 2019년 12월 새만금산단에 첫 투자협약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20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여 전장부품 시



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인 친환경 고효율 모터 제이기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하여 2019년 말부터 양산 중에 있으며, 자율주행 제어시스템 또한 국토교통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시범 구축사업부터 실증사업까지 핵심 기술력을 제공하여 미래 전장부품 원천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산업장은 "(주)씨스의 성공적인 투자로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와 연계한 미래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일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16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전북교육청 "삶이 얹이 되는 교육과정"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교사가 만드는 교육과정 개발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 공동체의 철학을 담아 교사가 만드는 교육과정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교과(군)별 및 20% 범위 이내 시수 증감을 활용해 학교 자율시간을 확보하고 이에 학교장 개설편을 신설, 편성·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도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과 특징 및 편성·운영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망라한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지난해 8월 개정·고시를 거쳐 오는 3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총론은 교사가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사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학교 교유의 학교교과목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이리동산초등학교와 회현초등학교가 지역의 삶을 통해 경제, 지리, 문화, 윤리 등의 주제로

학교 교과목과 학교 교과서를 개발해 실제 사용한다. 이러한 교사교육과정 실천과 학교교과목 개발을 통해 지역과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도울 수 있고 교사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서 제도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올해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교사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연수 및 실천과 연구 지원을 확대해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로 '전라북도 역사 이야기'를 개발하며 국가교육과정의 확실성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사교육과정의 실천 및 학교교과목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숙 기자

온택트로 만나는 '글로벌 전북'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선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온택트 공공외교 분야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 한해동안 전라북도 재재우호지역 미국(워싱턴주, 뉴저지주)·중국(윈난성)·일본(이시가와현, 가고시마현)·러시아(연해주) 4개국 6개 지역과의 온라인 방식의 전라북도 전통문화 체험, 쌍방향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재외 한국문화원 등과 협업하여 말레이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다섯 개 신종 교류지역에 전통한지 및 자개공예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지 주민 및 교민, 외국인, 재외동포 등 2,200여명에게 전라북도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센터는 도민의 글로벌 역량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1년 한-아세안 청년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최초 개최하여 전라북도와 아세안 지역 청년 간



의 교류협업과 상호간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센터는 '21년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22년에도 한-아세안 청년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연화 기자

또한, 전라북도 공공외교단 운영을 통하여 도민 112명이 통·번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캠프 대회, 2023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등 전북 내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통역 봉사활동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자체사업 외 공모사업 발굴에도 분주히 노력했다. 외교부 주관 '2021 한-일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소문난 책방'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음악회', '양국 전통 음식 비대면 세미나', '전라북도 전통공예 비대면 체험', '한-일 사진 공모전' 등 4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5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한-일 간 상호 이해도 향상, 우호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22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글로벌연수 정부부처 제안 사업'에 '몽골 고비알타이주 농업 기술 선진화(스마트팜) 공무원 연수'를 제안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센터는 국비 4억 8천만원 확보하여 3년간 몽골 고비알타이주 공무원 대상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제교류 분야가 다시금 위기를 맞았으나,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체계 구축을 위해 다방면에서의 대면·비대면 복합협업을 통한 효율적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2022년 임인년에도 '글로벌 전북'로 합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오는 21일까지 접수해야

전라북도가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 부문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경영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재정지원사업 공모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191만원/인당)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5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경영혁신을 위하여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이며, 기업당 1~2명의 인건비 일부(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本社 辭令

- ▲ 고문 손희중
- ▲ 문화기획이사 천병영
- ▲ 운영위원 임채만·김순정
- ▲ 지문위원 신동서·김찬호·박소연
- ▲ 본사기자 강순례·한근영
- (권고 사직)
- ▲ 장흥군 주재기자 김용만
- ▲ 나주시 지사장 박상섭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북 관광이 나아갈 길, 여기 다 모았다

전라북도는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2022~2026)의 관광개발 기본방향 및 실행전략 등을 담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7차 권역계획은 국가단위의 상위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문체부/2022~2031)의 구체화 계획으로 우리도가 추진해야 할 권역내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관광부문 종합계획이다. 전북도는 '천년역사·문화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이라는 비전하에 ▲안전하고 깨끗한 여행환경 조성 ▲공정기반 스마트관광 체계 구축 ▲상생협력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25개 추진과제, 181개 세부사업)으로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5개 과제, 15개 사업)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5개 과제, 68개 사업) ▲지역특색 관광자원 육성(5개 과제, 31



개 사업) ▲관광객 맞춤형 상품개발(5개 과제, 39개 사업)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5개 과제, 27개 사업) ▲신규 관광(단지) 조성(1개소)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전·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관광활동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자원, 건강·힐링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특화 자원 발굴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연화 기자